



# 적정온도유지 및 질병예방에 중점

**겨**울철에 육계 병아리를 입추하고자 할 때는 특히 기복이 심한 온도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어린 병아리일수록 온도 변화가 심하면 적응력이 나빠져 약추발생률이 높아져 사료효율이 저하되거나 질병 발생률이 높아 출하시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부화장에서 병아리가 도착하기 전에 빈계사를 청결하게 정리한 후 완전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 두어야 한다. 육추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점검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배치를 하는 것이 좋다.

계사는 적어도 1일전에 병아리에게 적당한 온도로 맞추어 놓고 급수기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알맞은 간격으로 배치한다. 이때 꼭 지켜야 할 사항은 소독이 된 계사내에는 관리자 이외는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일이다.

일단 병아리가 농장에 도착하는 즉시 육추기에

넣어야 하고 상자에 담긴 상태로 계사내에 오랫동안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관리인데 초생추때에는 37~38℃의 부화기 속에서 발생하여 솜털만 있는 상태이므로 체열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저조하므로 육추초기에는 부화기내의 온도에 가깝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일령이 차차 증가하면 솜털이 깃털로 바뀌므로 체온조절능력이 향상되므로 점차 실내온도를 낮추어도 된다(표1).

표1. 주령별 육추온도

주령	육추온도	계사온도	주령	육추온도	계사온도
1	35℃	24~27	5	23℃	20~23
2	32℃	23~26	6	폐온	18~21
3	29℃	22~25	7	"	"
4	26℃	21~24	8	"	"



입추로부터 첫주간은 사갓끝 깔짚에서 2~3cm 높이의 온도가 35℃가 되도록 해주고 이후 일주일 에 2.8~3℃씩 낮추어 주는 것이 좋다. 계사 내부 의 온도는 처음 24~27℃가 되도록 해주고 이후에 는 서서히 낮추어 5~6주령에는 최종 계사내 온도 가 18~21℃가 되도록 한다. 육추온도는 육추기의 종류, 육추실의 상태, 육추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 으므로 병아리의 행동, 건강상태, 성장을 등을 세 밀히 관찰하여 온도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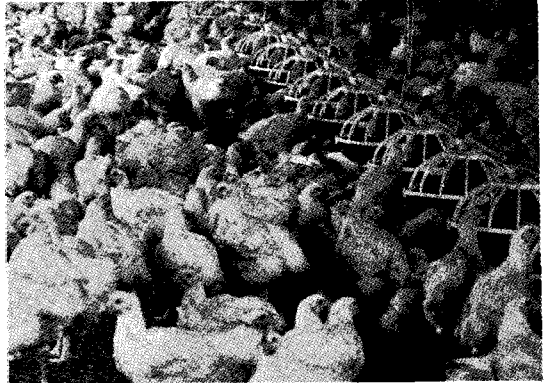
입추후 7~10일간은 습도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육추초기에는 실온이 매우 높고 건조해지기 쉬워서 습도가 부족할 경우 병아리는 소화불량이 되기 쉽고 성장률이 저하된다. 항시 바닥에 물을 뿌려주어 상대습도 60~70%를 유지해 준다. 7~10 일이 지나면 온도가 낮아지고 병아리의 음수량과 배설량이 증가하게 되어 과습의 염려가 있기 때문 에 일령 경과에 따라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육계농장에서는 대부분이 깔짚으로 벗 짚이나 왕겨를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목재 파쇄 기의 보급이나 목재소에서 톱밥구입이 수월해져 이의 사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육계의 육성 전기간을 통하여 사용되는 깔짚의 재료, 양, 질 등에 따라 계군출하시 수익에 큰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목면일 경우는 100㎡당 550kg의 비율로 깔아주는 것이 좋다. 깔짚의 좋은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무게가 가벼워야 한다.
- ② 크기가 적당해야 한다.
- ③ 흡수력이 강해야 한다.
- ④ 빨리 건조되어야 한다.
- ⑤ 부드럽고 폭신해야 한다.
- ⑥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 ⑦ 공기 중의 수분을 잘 흡수해서는 안된다.
- ⑧ 값이 싸야 한다.

급수관리에 있어서는 병아리가 도착한 후 첫4시



간 동안은 5~10%의 설탕물을 급수해 주는 것이 병아리의 활력증진과 폐사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 적이다. 처음 며칠간은 수온을 24℃ 정도로 유지하 여 주고 사료섭취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온을 낮추 어준다.

### ○ 질병관리

입추하기 전에 계사와 기구 및 계사 주위를 철저 히 소독하는데 각기 다른 소독제로 3회 이상 소독 하며 살균력이 약한 것에서 강한 순서로 실시한다. 입추 1주전에 최종적으로 훈증소독한다.

입추는 일시입추 일시출하(all-in all-out)방법을 실시하여 계군간의 질병전파를 막는다. 관리자 이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모든 출입자는 철저히 소 독한다. 계사가 비워지면 최소 1개월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병원균의 생활주기를 파괴하면 좋다.

병아리를 구입할 때는 추백리, MG 등의 난계대 성 전염병에 대해 음성인 병아리를 구입해야 한다. 계군이 완전히 격리되고 위생적인 환경하에서 사 육된다면 브로일러의 예방접종은 사실상 필요가 없으나 뉴캐슬, IB, ILT, 감보로 등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발생의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이전에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양계**

참고 : 오봉국저, “현대가금학” <김동진 기자>